

## 농업협상동향과 양계산업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온 국가가 떠들썩하다.

이 혼란이 얼마나 길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협상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이정도 된 걸 보면 협상담당자들은 협상을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왜 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많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DDA농업협상,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협상도 있고, 다시 재개된 협상도 있고, 앞으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나라들도 있다. 최근 DDA 및 FTA협상동향과 농업협상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학 균**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 DDA협상동향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2001년 11월에 출범하여 당초 협상시한이었던 2004년을 넘겨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이다. WTO의 152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상으로 협상과제가 농업, 공산품, 서비스 등 광범위하여 타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당 부문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DDA농업협상의 주요 논의 사항은 관세와 보조금

을 감축하여 각국의 농업보호 수준을 낮추고 농산물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우리나라는 농업보호수준이 높고 농산물중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감축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감축률을 가능한 적게 할 수 있는 “민감품목”, “개도국 특별품목” 관련 논의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DDA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진국/개도국, 수출국/수입국 등 그룹별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우리나라도 G10(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 10개국 모임), G33(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을 옹호하는 나라 모임)과 공조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관세와 보조금 감축원칙과 법률을 정하는 세부원칙(modalities)협상이 진행 중이며, 농업협상그룹의장(Falconer, 뉴질랜드 대사)이 제시한 문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장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

다.

WTO사무총장은 금번내 협상타결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내타결 가능성은 있으므로 그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대응방안 검토 및 집중적인 협상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 FTA협상동향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등 유럽 4개 국가), 아세안과는 협정이 이미 발효되었고 한·미 FTA는 작년 4월에 타결되어 국회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캐나다, 인도, EU(유럽연합 27개국)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금년 중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은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는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고 일본과는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적 협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GCC(걸프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와도 협상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관계부처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전체로 볼 때 FTA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부분 상대국들이 우리 농산물 시장에 관심이 높아 농업에는 적잖은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방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인 FTA 추진은 정부전체 방침에 따라 추진되지만 농업분야 협상은 신중하고 치밀한 방어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고 특히 일본과의 협상재개 및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상출범에 미리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 품목생산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소비자,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품목별 전문가와 네트워크 강화, 해외통상전문가 자문 및 협상상대국 정보수집확대 등 협상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협상이 양계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DDA농업협상

DDA농업협상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여 각국의 농업보호 수준을 낮추고 농산물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률을 선진국 5년, 개발도상국 8년을 정해 놓고 관세감축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닭고기 및 계란의 현행 관세가 20~40%로 타 작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으로 DDA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닭고기, 계란은 DDA보다는 FTA의 영

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2) FTA농업협상

세계 최대의 닭 사육국은 중국, 미국, EU 순이다. EU국가 중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독일이 주 생산국이다.

반면 1인당 닭고기 연 소비량은 미국(46.3kg), 말레이시아(38.3kg), 캐나다(29.8kg), 대만(29.5kg)순이고 미국, 브라질, 중국은 닭고기 주요 수출국이다.

닭고기와 계란 모두 국내가격이 '05년 도매가격 기준으로 미국산보다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은 편이나 대부분 닭고기는 유통이 냉장육으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계란 역시 우리 국민은 신선란을 선호하는 관계로 신선란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은 국내산은 냉장 통닭형태의 가정용으로, 수입산은 냉동부분육의 외식산업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다만, 국내 소비패턴이 가정소비에서 외식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입육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수 있어 국내 육계산업의 위축 예상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및 EU와의 FTA대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머지않아 가까운 중국과의 FTA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계란의 특성상 신선도 측면에서 냉장제품의 수입이 제한되므로, 농가와 업계가 함께 품질향상 및 위생·안전성 강화 등을 통해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도모해 나간다면 개방 확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양계**